

“매출 줄고 이자 부담 커져”...소상공인 절반 ‘경영악화’ 전망

주요 부담 요인 ‘고물가’...내수 침체 속 대출 부담 심화도 채감 지원 정책 금융지원 쏘아...고금리·인건비 해결 시급

전반을 넘어서는 비율의 소상공인이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고물가와 대출 상환 부담 등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6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생활밀접 업종의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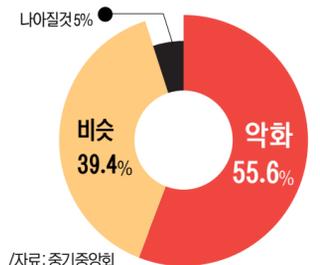
이번 조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악화된 경영환

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5.0%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55.6%)되거나 비슷(39.4%)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인 전망을 한 응답자는 5.0%에 불과했다.

가장 큰 사업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2.8%)가 꼽혔으며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43.1%), 대출 상환 부담(36.4%), 인건비 상승·인력 확보 어려움(35.5%) 순이었다.

소상공인 경영전망 조사 (기준: 전년대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의 93.5%는 폐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의 78.5%가 생계형 창업으로 운영 중인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활용률은 24.6%로 특

히 숙박·음식점업(40.0%)에서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총 매출액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평균 35.4%로 조사됐으며 사업 기간이 짧을수록 온라인 플랫폼 활용률과 매출 비중이 높아 창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은 소상공인의 73.8%가 사업 목적으로 대출 받고 있으며 34.9%가 전년 대비 대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의 93.7%가 원리금 상환, 이자 납부 등에 관해 부담(때우 부담 61.0%, 다소 부담 32.7%)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평균 대출 금리는 4.98%였고 5.0% 이상인 경우도 65.9%에 달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금융지원(80.8%) ▲판로지원(9.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2.4%) ▲상생협력 문화 확산(1.9%)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가나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복수응답)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 완화(63.4%) ▲인건비 상승·인력 부족 해결(63.0%) ▲소상공인 소득공제 혜택 확대(29.6%)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28.3%) 순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에 이어 정치 불안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내수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광주은행,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6천억 지원

신규자금 3천억·만기연장 3천억 편성

광주은행은 오는 2월28일까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규모의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

라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됐으며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업체의 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자금 3천억원과 만기연장 3천억원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신규자금에 한해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5%p(포인트)를 우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이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이번 설명절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

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자금 지원을 비롯한 신속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착경영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재만기자



탐라레저그룹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주)탐라레저그룹에서는 프리실버타운사업에 동참할 소액 단기 출자자를 모집합니다.

(3,000만원 6개월 출자시 ▶ 540만원+α 지급)



황금출자 삼위일체

01 안정성
콘도 객실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02 수익성
콘도, 골프, 회원권, 분양으로 총 3% 이상 고수익 보장

03 환금성
콘도 리모델링 준공후 은행권 담보 대출로 100% 원금 반환

탐라레저그룹 Tamra Leisure Group

- ◇ 탐라레저그룹 출자회원에게 대한 혜택 ◇
- 매월 90만원씩 출자회원 지정계좌로 현금 입금해 드립니다.
 - 탐라콘도, 골프 10년 이용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 애니밴드라이프 상호회원 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실버타운 웰니스파크 우선 입주 청약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도고콘도 객실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드립니다. (원금 3,000만원에 대한 4,500만원 1순위 설정 등기)

◇ 에스프로 방식 ◇

출자금 3,000만원은 박 두 영 법무사 사무소 계좌번호 농협 351-1332-8888-63(예금주 박두영)으로 입금하시면, 도고콘도 객실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 1순위 근저당 설정등기 후에 (주)탐라레저그룹에서 출금하여 도고콘도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합니다. (출자 수익금에 대한 세액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등기권리증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출자문의 **1533-1494**

1인 9,000만원 출자가 가능



겨울 속 향긋한 봄나물이다... 농협유통이 봄동·달래·냉이 등 겨울철 건강을 위해 향긋한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하나로마트에서 봄나물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농협유통 제공>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해결 ‘총력’

24일까지 집중청산 기간 운영...신고 전용 전화 개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8일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해 임금체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전국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용 전화(1551-2978)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체불이 발생한 경우 전담 근로감독관에 상담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채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에 방문해 직접 해결·지도할 예정이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체불임금이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특별재난지역 무안 상권 점검

전통시장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고 있는 곳이다.

오영주 장관은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상인들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나누고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시장 내 다양한 점포들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산물 등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은솔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